



행복해지려면 스타일을 갖자

정유희/매종 마리클레르 편집부 기자

지붕 위에서 솜털같은 햇살을 쬐며 즐기고 있는 고양이들이나, 목련이며 개나리가 기다렸다 — 는 듯 꽃망울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면 이전 완전한 봄인가 싶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스산했다. 그래서인지 갑작스럽게 찾아든 봄은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바라보는 세상처럼 생경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봄에는 새로운 변화를 꿈꾼다. 더구나 2000년대 들어 첫번째로 맞이하는 봄인 만큼 그 욕구는 더 강할 것이다.

주부들은 이즈음 어느 때보다 집 안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 한다. 벽지의 컬러도 바꾸고 싶고, 가구 배치도 생각해 보고, 화분을 놓을까, 꽃꽂이를 할까 고심하곤 한다.

하지만 시작하기도 전에 많은 의문들에 질려 버려 그나마 짧은 계절을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떠나 보내기 쉽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는가, 아이들 뒤치다 거리 하기도 힘든데 시간이 어디 있는가, 내게 그럴 만한 미적 감각이 있겠는가...

요즘 사람들은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이란 말을 상용어처럼 쓰고 있다. 이는 쉽게 풀이하면 모든 상황에서 자기다운 선택을 할 때 차차 완성되어 가는 자신만의 일관된 생활 양식이다.

그것은 하루 아침에 책을 읽어 깨우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손에 의뢰하여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생활 양식은 겉으로 보는 외양은 물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여가를 보내는 방식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집 안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동양의 선(禪) 사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집 안을 가득 채우기보다는 여백을 많이 두려고 애쓰는 편이고, 여성스러운 성격과 취향을 지닌 사람은 장식성이 강한 인테리어를 선호한다.

하지만 무조건 돈을 들여 집 안에 '금칠'을 하거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집 안에 약간의 정성도 들이지 않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직업상 타인의 집을 방문할 때가 많은데 순전히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외제품을 잔뜩 쌓아 둔 집도 있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지 아무렇게나 방치해 둔 집을 만날 때도 있어 실망스러웠던 경험이 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자신만의 생활 양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문제는 돈이나 시간이 아니다. 자신과 자신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정성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첫 걸음이다.

일단 이런 자세만 갖추면 점차 일관적이면서 멋진 생활 양식을 터득할 수 있다.

봄을 맞이하기 위해 집을 꾸밀 때도 마찬가지다. 남들이 좋다는 값비싼 가구를 사들이거나 유행이라고 덩싹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소품을 구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오히려 작은 아이디어가 색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늘 사용했던 도자기, 꽃병을 치우고 유리 시험관에 꽃을 꽂아 본다거나, 평범한 모양의 새 의자를 구입하기보다 낡은 의자를 화려한 색으로 칠해 보는 것이다.

올 봄, 행복한 집 안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면 너만의 개성적인 방식을 찾아 보자.